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생활과 윤리 해설

1. [출제의도] 윤리학의 구분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이론 윤리학, ‘어떤 윤리학자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2.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수양을 통해 예(禮)를 회복하여 인(仁)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해의 원조에 대한 노직, 싱어,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노직, 을은 싱어, 병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의 원조를 통해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윤리적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 [출제의도]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한 행위라고 보았다. 그는 모든 쾌락에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벤담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쾌락의 총합이 극대화될 수 있게 행위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5. [출제의도]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족이나 부락과 같은 공동체처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며, 인간은 국가 안에서 훌륭한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사회 갈등 해결 방안 제시하기

신문 칼럼은 6·25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문 칼럼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과 갈등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7.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 노직,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마르크스, 을은 노직, 병은 롤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분배 방식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정형적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할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보게 될 경우 인간은 기술에 종속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라고 보면서,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성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입장 비교하기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같은 보수주의 입장이고, 을은 중도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하다고 본다. 중도주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정당하다고 본다.

10. [출제의도]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하기

같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가 순수한 인식을 방해한다고 보고,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진리에 대한 순수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으로 보고, 인간이 죽으면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칸트, 베카리아,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사형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중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전체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토론의 핵심 쟁점 이해하기

같은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을은 동물 실험이 인간의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대체 방안이 존재하므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3. [출제의도] 엘리아데의 종교관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로 보고,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언제나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스러움은 세속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 세계에 들어와 우리의 체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사회적 협력의 조건이 침해되었음을 정당하게 알리는 행위로 보았다. 이는 헌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된다고 보며,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잊힐 권리와 알 권리 비교하기

같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익적 정보에 대한 사체를 금지할 수 있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 [출제의도] 음악에 대한 순자와 목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순자, 을은 목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음악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자는 악기 제조를 위해 민생에 사용될 재물이 낭비되며 연주와 감상을 위해 노동력이 사용됨으로써 음악은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칸트, 레건, 레오폴드의 자연관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칸트, 을은 레건, 병은 레오폴드이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되며,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대지를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국제 관계에 대한 칸트와 모겐소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칸트는 이상주의 관점에서 공화제를 실현한 국가들이 우호 관계에 기초하여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세력 균형이 전쟁의 예방이나 억지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칼뱅과 맹자의 직업관 이해하기

같은 칼뱅, 을은 맹자이다. 칼뱅은 인간의 모든 직업 활동이 신의 소명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면서 각자가 사회적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